

| 간행사 |

충남대학교는 2012년 5월 25일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다.

금번 우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60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대학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여 그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100주년에는 국제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충남대학교 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에서는 60년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8월 16일 편찬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과 상임편수원들이 위촉됨으로서 “충남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본부 1층 추진단실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편찬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편찬위원회를 열어 60년사의 체재와 편찬방향을 결정하였다. 먼저 “50년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의 기본체재를 따르면서 축약하고 최근 10년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60년사를 편찬하였다. 첫째, 충남대학교의 60년을 크게 3장으로 나누어 시대 구분별 지나온 발자취를 집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 설립 및 정착기(1952. 5. 25 ~ 1967. 12. 31), 제2장 발전 및 확장기(1968. 1. 1 ~ 1989. 3. 21), 제3장 중흥과 도약기(1989. 3. 22 ~ 2012. 5. 25)로 분류하였다. 둘째, 각 장에는 핵심서술 부문으로 총설, 일반사, 교무(학사), 학생(복지), 연구(현황, 연구소, 산학협력), 환경(시설) 및 행정(재무), 부록 및 영문요약으로 분야별 특징을 살려 분류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위와 같은 편찬 방향 아래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편찬위원회의 역량부족, 시간과 자료의 부족 등으로 미진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을 아무쪼록 해량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60년사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책의 기획부터 시작하여 전체과정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해주신 정상철 총장님과 송용호 전총장님,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찬과정이 순조로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주신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김원식 단장님과 손종학 기획처장과 신희권 전기획 처장을 비롯한 기획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편찬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본부 각 부서와 대학신문사, 중앙도서관 등 각 기관 관계자들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바쁜 학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편찬에 온 열정을 쏟으신 60년사 부문별 편찬위원들인 김상기 교수(총설, 개관), 김순희 교수(교무, 학사), 김종임 교수(학생, 복지), 경일남 교수(환경, 시설), 임현섭 교수(연구활동), 맹수석 교수(행정, 재무), 이형권 교수(부속기관), 김택중 교수(영문요약), 오치규 교수(표지디자인), 박홍준 서예가(표지제자), 그리고 전반적인 자료정리와 부록작업 등 힘든 일을 도와준 상임편수원 한주희 선생과 박수연 선생, 그리고 최민성 박사에게, 아울러 많은 원고를 짧은 기간에도 좋은 책자로 만들어 주신 문원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12년 5월 25일

충남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명 평 근

| 인터넷판 간행사 |

충남대학교60년사 인터넷판 발간에 즈음하여

1952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시연합대학으로 출발한 우리 충남대학교가 대한민국 태동기와 성장기의 질곡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곳곳하게 60년을 견디어 2012년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년동안 우리 충남대학교는 국가의 심장부에 위치한 상아탑으로서 고등교육의 창달을 통해 우리 국민의 민족적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지역 발전의 역군인 인재 양성의 산실로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개교의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에 근무했던 수많은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우리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 모두 어림잡아 20여만명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과거 100년이 오늘의 1년에 해당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축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개교60년이 바로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금번에 개교60주년을 맞아 인터넷 60년사를 발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는 인쇄판만 발간해 왔으나 이제 인터넷 세상을 맞아 인터넷6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두 번째는, 인쇄판은 담을 수 있는 분량에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판은 충분한 량의 자료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쇄판은 출판의 단계가 많고 인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개교기념일에 맞춰 출간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원고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개교60주년 당해 연도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나 기념사업 등은 실을 수가 없으나 인터넷판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쇄판은 압도되는 분량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는데 비해 인터넷판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아보기 등이 쉬워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발간되는 금번 인터넷판은 그 기초를 인쇄판에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이에 '충남대학교60년사' 인쇄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충남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인쇄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자료들을 다시 취합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훌륭한 '충남대학교60년사 인터넷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신 개교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출판사에 감사사를 드린다.

2012년 7월 31일

개교60주년기념사업추진단